

ICT 업계, 中 사드 보복에 찬바람

3월 BSI 2월 보다 5포인트 하락한 85... 중국 '텐센트 브랜드 솔루션' 한국행사 돌연 연기

최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ICT분야 15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ICT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업황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수출이 가장 큰 부진요인(87.8%)으로 지목되면서 BSI는 2월 보다 5포인트 하락한 85로 전망됐다.

지난달 ICT 업황은 90으로 전월(88)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3월 업황 부진요인은 대중소기업 모두 내수와 수출 침체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3월 업황 BSI는 정보통신방송기기 8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87, 소프트웨어 87로 전반적인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통신서비스 중 무선통신서비스는 BSI가 100으로 2월 업황과 비슷하고, 다른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관측됐다.

3월 업황 전망BSI는 제품재고와 생산설비만 100에서 101로 전월대비 상승했으며, 고용수준(97→95)·설비투자실행(98→97)·자금사정(91→88) 등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3월 기업경영판단 BSI는 생산증가율 88, 내수판매 88, 수출 93, 가동률 92, 채산성 87로 2월 업황과 비교해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3월 업황 부



파리 유명 백화점 쇼윈도를 장식한 K패션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인 합섬은 10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 라파예트 백화점 입점을 기념해, 남녀 캐주얼 브랜드 시스템과 시스템옴을 백화점 외관 쇼윈도에 전시한다고 8일 밝혔다. 120년 전통을 자랑하는 라파예트 백화점은 프랑스 최대 백화점으로, 매년 3,000만명 이상의 쇼핑객과 관광객이 찾는 '파리 패션의 상징'이자 '글로벌 패션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진은 기기 부문에서 수출 부진과 함께 국제경기, 사업영역, 고정비용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 관계자는 "ICT 업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의 지속적인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불안, 한미FTA이슈,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 등 대외 불안요인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되면서

ICT 뿐 아니라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한국 시장 진출을 늦추는 분위기가.

실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챗과 웨이보로 유명한 중국 최대 IT기업 텐센트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정했던 '텐센트 브랜드 솔루션' 행사를 돌연 연기했다.

게임 업계도 중국 정부의 한한령(한류 금지·제한령)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액트즈소프트 구오 하이빈 대표이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한국 게임을 제한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서도 "관호(게임 인허가)에 대한 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것은 맞다. 심사 기간도 길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국제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올 뉴 크루즈' 최대 200만원 인하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올 뉴 크루즈의 출시가격이 트림별로 최대 200만원까지 인하해 다음주부터 고객에 인도한다.

쉐보레는 7일부터 신형 크루즈의 생산을 재개하고 이 같은 가격 인하 결정을 내렸다.

신형 크루즈는 이번 가격 인하 조치에 따라 1600만원대(자동변속기 기준)부터 시작하는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확보했다.

쉐보레는 신형 크루즈의 기본 모델 LS트림 가격을 종전 가격 대비 200만원 인하한 1600만원대(자동변속기 기준)로 책정하고, LT트림부터 선택사양으로 제공되는 내비



게이션 패키지의 가격을 40만원 가격 인하했다.

전 트림에 신형 1.4 터보 엔진과 3세대 6단 자동변속기를 기본으로 적용한 올 뉴 크루즈의 판매 가격은 LS 1699만원, LT 1999만원, LT 디럭스 2151만원, LTZ 2308만원, LTZ 디럭스 2349만원(부가세 포함) 등이다. /군산=류정곤 기자

3월 美금리인상 이슈에 주요국 국채금리 ↑

한은 '2월중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원화 가치도 상승 전환

미국의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달 들어 주요국 국채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됐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중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주요국 국채(10년) 금리는 3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월 2.39%에서 6일 2.50%로 11bp(1bp=0.01%)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일본(0.06→0.07%), 독일(0.21→0.34%), 영국(1.15→1.21%) 등 선진국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월 2.16%에서 3월6일 2.25%까지 올랐다. 신흥국 중 중국(3.32→3.36%), 인도(6.87→6.88%), 터키(10.60→11.01%) 등의 금리도 상승했다. 반면 인도네시아(7.54→7.49%), 브라

질(10.24→10.23%), 멕시코(7.38→7.36%), 러시아(8.44→8.29%), 남아프리카공화국(8.80→8.68%) 등은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연방준비제도의 매과 전환으로 3월 들어 원화 가치도 상승 전환했다.

원·달러 환율은 1월 1162.1원에서 2월 1130.7원으로 내려갔다가 3월(6일) 들어서는 다시 1158.0원까지 올랐다. 원화 가치가 2월 2.8% 절상됐다가 3월 들어 2.4%나 하향된 셈이다.

한편 올해 2월까지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49억 3000만 달러 늘어 1월(+26억 달러)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식 투자자금은 3억9000만 달러, 채권은 45억 4000만 달러씩 증가했다. /뉴시스

노트북 시장, 사용 시간·안전성 경쟁 중

LG '올데이 그램' 24시간 사용... '삼성 노트북9 울웨이즈' 23시간 사용

국내 기업들이 출시한 2017년 노트북 신제품들이 전자제품 휴대 트렌드에 맞춰 장기간 배터리 사용과 안정성 등을 마케팅의 핵심으로 활용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트북 시장의 중심 트렌드는 배터리의 지속 시간 여부다. 외부 업무와 노트북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콘센트 충전 없이 얼마나 오래 사용이 가능한가가 마케팅의 관건이 되는 것은 물론, 배터리 용량 및 안정성 등에 소비자들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LG전자는 신제품 '올데이 그램'에서 배터리 용량을 대폭 늘려 하루 종일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올데이 그램은 방전 상태에서 20분만 충전하면 3시간, 1시간을 충전하면 약 1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과도한 전류를 쏘아 부어 배터리에 무리를 주는 급속 충전과 달리, 배터리에 손상을 없도록 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충전할 만한 장소나 도구 등을 들고 다니기 불편한 소비자들의 '장 시간 사용 가능한 노트북'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언제 어디서나 전자 제품을 휴대하며 즉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해진 최근의 추세에 적합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

다.

LG전자는 올데이 그램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며 "보통 배터리 용량을 위해서는 분리막을 얇게 충전 용량을 늘리곤 한다"며 "하지만 양극과 음극이 온은 만나면 뜨겁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절대 만나선 안되기에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속 충전 역시 배터리 수명이 빠르게 단축될 가능성이 시뮬레이션 결과로 확인돼 제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한 번 충전으로 23시간 사용 가능한 '삼성 노트북9 울웨이즈(Always)' 대용량 배터리 탑재 모델 2종(모델명 900X5N-X, 900X5N-L)을 추가 출시했다. /뉴시스

기준 30Wh 용량 대비 두배 이상 컸으며 출력 10와트(W) 이상의 휴대 폰 충전기,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퀵 충전 기술이 탑재돼 기본 제공되는 65와트(W)의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 20분만 충전해도 5.8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고 100분이면 완충도 가능하다.

삼성전자 역시 기본적으로 낙하·충격·압축·가속수명·열충격·배터리 충방전·배터리 장수명 테스트 등 수백가지 검사를 진행해 안전성 테스트를 거친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충전과 장기간 배터리 사용에 관련된 기본적인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트북 자체의 복잡한 성능보다는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이는 만큼 이에 대한 성능과 부작용 여부가 노트북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취업자 상위 20%소득, 하위 20%의 3배

상위 20%의 직장인 소득이 하위 20%보다 3배 가까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은 전국 만 20~64세 취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월평균 개인 근로·사업소득은 283만원이었으며, 남성이 337만원으로 여성(208만원)보다 1.6배 많았다.

소득 격차도 컸다. 상위 20%인 1구간의 평균 소득은 445만원으로 하위 20%(5구간)인 160만원 대비 2.8배 많

았다. 가구로 비교하면 양극화는 더 뚜렷했다. 소득 1구간의 월평균 총소득은 911만원으로, 5구간의 174만원 대비 5배 이상 많았다.

소득의 절반 이상은 소비에 썼다. 월평균 총소득 486만원에서 소비에 쓴 금액은 245만원으로 소득의 50.3%를 차지했다. 저축·투자 금액은 111만원(23.7%), 부채 상환에 56만원(12%)을 지출했다. 잉여자금은 소득의 12%인 56만원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금액은 최대 4.3배 정도 차이를 보이는 반면 교육비는 최대 21배까지 벌어졌다. /뉴시스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 13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2017. 3. 11(토) ~ 3. 12(일)
-진안 주천면 윤일암반일암 삼거광장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